

-건만

~건만 — 그런데도, ~했건만

탄식이 담긴 대조입니다. -지만가 중립적인 데 비해 -건만에는 일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되지 않았다는 실망이 담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건만	기다리다 → 기다리건만
과거	-았/었건만	기다렸건만
ㄹ 어간은 ㄹ 유 지	-건만	만들건만
더 긴 형태	-건마는	기다렸건마는
뒤 절	실망스러운 결과	아무 소식이 없다
중립적인 표현	-지만, -는데도	기다렸지만

■ 언제 쓰나요

-건만은 모든 어간에 붙습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그대로 남으며, 앞에 시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: 했건만. 더 긴 형태는 건마는입니다.

앞 절은 어떤 결과를 낳았어야 할 일을 말하고, 뒤 절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전합니다.: 그토록 기다렸건만 아무 소식이 없다.

감정의 색채는 아쉬움이나 탄식입니다. 이 점에서 단순히 대조하는 -지만, 중립적으로 양보하는 -는데도와 구별됩니다.

문체는 문학적이어서 시, 소설, 격조 있는 연설에서 씁니다. 동료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.

■ 예문

- 1 그토록 기다렸건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.
- 2 봄이 왔건만 마음은 아직 겨울이다.
- 3 최선을 다했건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.
- 4 여러 번 일렸건만 그는 듣지 않았다.
- 5 정성껏 만들었건만 알아주는 이가 없다.
- 6 세월은 흐르건만 그리움은 여전하다.

■ 비교

-지만

-지만은 두 사실을 아무 논평 없이 대조하고, -건만은 뒤의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느낌을 더합니다.

기다렸지만 안 왔어요. (하지만 오지 않았음) / 기다렸건만 오지 않았다. (그토록 기다렸는데도 끝내 오지 않았음)

-는데도

-는데도는 중립적으로 양보하고, -건만은 탄식합니다. 논리는 같지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.

노력했는데도 안 됐어요. (노력했는데도 안 됨) / 노력했건만 되지 않았다. (노력했건만, 아아)

-고도

-고도는 행동과 태도 사이의 어긋남을 흔히 비판적으로 지적하고, -건만은 오지 않은 결과를 안타까워합니다.

알고도 말 안 했어요. (알면서도 말하지 않음) / 알렸건만 소용없었다. (알렸는데도 소용없었음)

■ 주의

- ✗ 그토록 기다렸건만 드디어 소식이 왔다.
- 그토록 기다렸건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.
- 뒤 절은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. 좋은 결과가 오면 이 어미의 어조와 어긋납니다.
- ✗ 야, 어제 기다렸건만 안 왔어.
- 야, 어제 기다렸는데 안 왔어.
- 건만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 쓰면 시를 낭송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
- ✗ 최선을 다하건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.
- 최선을 다했건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.
- 기, -도록과 달리 이 어미는 시제를 붙일 수 있으며, 이미 한 노력에는 과거형이 필요합니다.